



아트레온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입·출차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INVITATION

희망무역 사업설명회

TEL 02.739.7944

FAX 02.723.7215

MAIL webmaster@ecofairtrade.co.kr



사업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4월 3일 (화) 늦은6시
+장소 : 신촌 아트레온 13층 다목적 홀

+프로그램

***사회 :** 윤정숙(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

- 다과 / 인사
- 인사말 :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 축사 : 오재식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 동영상 "희망을 만드는 무역, Fair Trade"

- 프리젠테이션
 - *희망무역 소개
 - *회사설립 프로젝트
 - *브랜드 소개

- 질의 / 응답
- 디너 (네팔 오가닉 푸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정한 거래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에코 비즈니스
 윤리를 존중하는 얼터너티브 패션

님을 (주) 희망무역의 파트너로 초대합니다.

희망무역(Fair Trade)은 보다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대안적 세계화 운동입니다.

희망무역은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로하스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글로벌 시민운동이자, 사회적 기업운동입니다.

희망무역의 물건은 생산의 전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산자들의 자연주의 전통기술을 상업화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에코 비즈니스를 지향합니다.

반세기 전, 유럽, 북미지역에서 시작된 희망무역은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매년 2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며 세계 2조원에 가까운 무역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희망무역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해 페어트레이드 전문 주식회사, (주)희망무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세계 희망무역의 날" (2007. 5. 12) 런칭 될 오가닉 코튼 브랜드, G-Ru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무역이 아시아에 희망을 주는 씨앗사업으로, 그리고 착한 비즈니스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 기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기인이 되어주십시오.

♥ 초대하는 사람들

박영숙, 이상화, 김상희, 이해경, 윤정숙, 남미정, 최재숙, 이미영  **아시아여성환경연대**